

날짜 2024-07-07(D1) 본문 눅20:19-26
번호 2551 설교 변일국 목사
구분 주일예배, 성찬 찬송 찬90 '주 예수 내가 알기 전'

시작 주기도
찬송 찬92 '위에 계신 나의 친구'
기도 권영희 사모
본문 눅20:19-26
설교 '가이사의 것, 하나님의 것'의 속뜻
성찬 마26:26-28, 찬230, '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'
찬송 찬93, '예수는 나의 힘이요'
봉헌 권영희 사모
광고

- ① 번역 및 블로그
 HH.329, 37장, '천국의 어린이들'(HH.329-345)
- ② 교회 이모조모
 주연이네 둘째 출산 임박, 기도 부탁

헌금기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축도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세 번째 본문으로, 저 유명한, ‘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’ 하신 본문입니다.

오늘도 본문 여러 표현의 속뜻들, 곧 ‘제사장’, ‘서기관’, ‘정탐’, ‘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 나이다’, ‘가이사’, ‘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’, ‘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’의 의미와, 특별히 중간중간 필요한 설명들, 곧 ‘대제사장들’이라는 복수 표현이 사용된 것, 진리의 능력, 곧 ‘천국 천사들의 능력’에 대하여, 그리고 ‘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’ 장면에서 숨겨진 당시 정황 등 여러 보충 설명들로 보다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.

주님, 세상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그동안, 이 둘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줄 알고 힘들게 살아왔는데, 오늘 권면, ‘...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소유하는 세상 것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즉 세상일을 할 때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보다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입니다...’ 말씀에 힘입어 제 시야가 밝아짐을 느꼈습니다. 주님, 저로 하여금 주님 빛 안에 거하여 늘 밝은 시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!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